

전주, 수공예산업의 메카로 키운다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 개최... 핸드메이드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5가지 가치 담은 ‘전주 선언’ 선포

전주시가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린 수제작(핸드메이드) 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 대중화를 통해 이탈리아 피렌체와 같은 세계적인 수공예도시로 도약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시는 20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지역 공예작가, 전주에서 활동중인 무형문화재, 시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 개최식을 가졌다.



“노지 냉이 수확해요” 20일 오전 정읍시 북면 왕지봉 농장에서 농민들이 봄철 대표 나물인 노지 냉이수확을 하고 있다. 냉이는 채소류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이 풍부하고 춘곤증을 예방하는 칼슘·칼륨·철분이 많으며 비타민 A 함량도 높아 긴마 눈을 튼튼하게 한다. 밭고 충혈된 눈에도 좋다.

‘전주수길(Handmade in Jeonju)’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수제작(핸드메이드, handmade)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핸드메이드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첫 공식행사로, 이날 개최식에서는 핸드메이드를 통해 전주가 실천하고자 하는 5가지 가치를 담은 ‘전주 선언’이 선포됐다.

전주선언의 주요내용은 △발견의 가치 △만드는 가치 △참여하는 가치 △변화의 가치 △꿈꾸는 가치 등으로, 시는 전주선언 선포를 시작으로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의 신평과 가치를 시민 생활 속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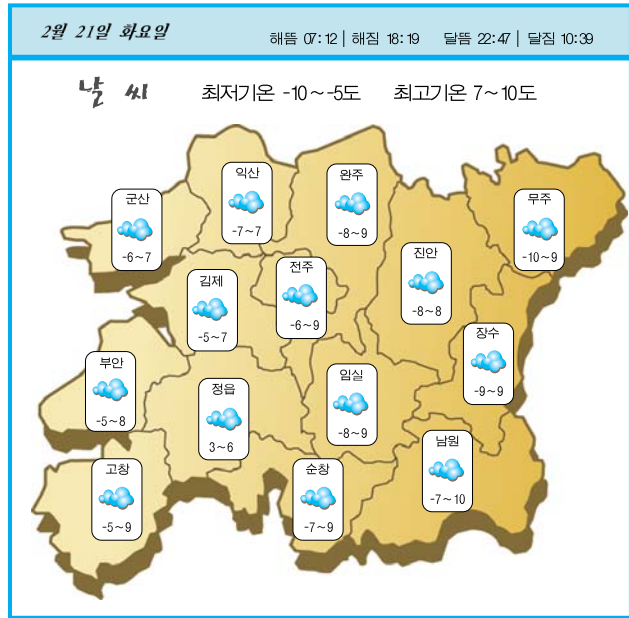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개최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만든 핸드메이드 씨앗과 꽃을 핸드메이드 나무에 장식하는 이벤트 등 핸드메이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9일간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의 손길을 체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도시와 삶 주제전시(20~28일) △동네손 주제전시(20~28일) △월드페이퍼 전시(20~28일) △서포전시(20~2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전주메이드(20~28일) △월드페이퍼 전시(20~28일) △디자인&크래프트 캠프(21~24일)가 눈길을 끈다. 한옥마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핸드메이드 정원(20~28일) △수제작작

소(20~28일)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프리마켓(24~28일)도 관심을 모은다. 또, 핸드메이드 스퀘어(20~28일)이 진행된다. 이밖에 경기전 마당에 자리한 핸드메이드 버스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핸드메이드 버스는 수제작 가치 확산을 위한 도시공공 특화사업으로 내부를 가죽 손잡이와 패브릭시트커버 등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장식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 등이 직접 만져보고 공감각적 경험으로 핸드메이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전주의 운명을 바꿀 ‘살아 있는 손의 힘, 핸드메이드의 품격’을 만든다. ‘핸드메이드 시티’ 프로젝트는 전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지의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며 전주핸드메이드 시티의 신평과 가치를 확산시켜 수제작 산업을 부흥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핸드메이드의 개념을 결합시켜 전주를 피렌체와 같은 세계적인 핸드메이드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봉사동아리 마중물 완주 선덕보육원 아동들과 겨울 놀이 체험

전북도교육청 봉사동아리 마중물 회원들이 완주 선덕보육원 아동들과 무주리조트를 찾아 눈썰매를 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18일 봉사동아리 마중물(회장 김한수) 회원들은 선덕보육원 아동과 인솔자 등 52명과 함께 무주리조트 눈썰매장을 찾아 눈썰매, 겨울산 곤드라 체험, 여가활동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35명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마중물은 2014년 창립했으며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인 완주 선덕보육원 익산 기독삼아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활동도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교육청 고교생 과학동아리 150개 지원

과학 실험·연구, 교과 외 활동 등 다음달 18일~26일까지 공개모집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의 잠재 역량과 자율성을 길러주고 과학적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생 과학동아리 150개를 공개모집해 지원한다. 20일 도교육청은 과학실험, 과학연구, 교과 외 활동 등 3개 분야,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 과학동아리 150개를 다음 달 하순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같은 학교 학생 3~10명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지도교사가 있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과학실험 분야(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융합과학)에 동아리 85개, 과

학연구 분야(자유 연구과제, 컴퓨터 과학)에 동아리 35개를 지원한다. 또 교과외 활동 분야(메이커, 지역 사회 연구, 과학봉사)에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표학생이 이메일 moons5@koreakr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과학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과학교육연구회를 대상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7년 ICT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기 살리기엔 나선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신성, 이하 진흥원)은 20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ICT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ICT기업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시와 진흥원은 올 한해 추진할 IT·SW분야, 3D프린팅분야, CT(문화콘텐츠)분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시는 IT·SW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농·생명 등 지역특화산업분야와 ICT기술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구축 △Agro-ICT 미래기술 융합클러스터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꿈나무 육성 및 창업기업발굴을 위한 K-ICT 디바이스랩 운영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창작터 운영 △인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적극 추진,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팅 분야 기업들을 위해서는 시제품제작지원사업과 탄소 등 유연소재 융합기술지원사업,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사이니지와 미디어파사드, 가상증강현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스마트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K-ICT 전북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증강현실(VR)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사업, VR체험존 구축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R&D역량강화,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글로벌 기업육성 계획, 창업벤처활성화사업

등 지역ICT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서문신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ICT기업의 기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2017년 ICT중소기업활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문화기반 콘텐츠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에 기존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한발 앞선 정책 개발 및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돌아볼게요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